

서 가 를  
편집 하자

# 이한치한(以閑治寒)! 책 읽는 여유로 겨울을 물리쳐라!

따뜻한 겨울 방에서 읽어 내는 궁극의 대작 4선

## 소립자

미셸 우엘벡 | 352면 | B6 권장정 | 9,800원

2010년 공쿠르상 수상 작가 미셸 우엘벡의 말이 필요없는 대표작. <다른 소설들이 토끼를 사랑하고 있을 때 이 소설은 거대한 사랑감을 노리고 있다>는 줄리언 반스의 말이 대변하듯, 서구 사회, 성, 종교에 대한 거침없는 통찰로 발표 당시 프랑스 내에서 격심한 사상적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번역가 이세욱의 유려한 번역으로 책의 가치가 한층 빛난다.

## 추운 나라에서 돌아온 스파이

존 르카레 | 288면 | B6 권장정 | 9,800원

20세기를 대표하는 존 르카레의 걸작 스릴러. 1960년대 냉전 상황이 극에 달한 시기, 각국 스파이들의 주요 활동 무대였던 베를린을 배경으로 비정한 국제 첩보전의 세계가 펼쳐진다. 1964년 영미 최고의 베스트셀러에 올랐고, 서머시 몸상, 에드거상 등을 휩쓸었다.

## 부활 상하

레프 니콜라예비치 톨스토이 | 304면, 398면 | B6 권장정 | 각권 9,800원

한 남자가 한 여자를 구하기 위해 그녀의 유형지인 시베리아로 동행한다. 그들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을까? 작품의 구상에서 탈고까지 무려 10여 년, 검열과 파문에도 굴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완성해 나온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마지막 역작!

## 궁극의 리스트

움베르토 에코 | 408면 | B5 권장정 | 45,000원

소설 『장미의 이름』의 저자이자 『미의 역사』, 『추의 역사』에서 색다른 미학의 세계를 펼쳐 보인 움베르토 에코. 그가 <목록(list)이야말로 그 시대의 세계관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고 말한다. 2년 동안 루브르 박물관 객원 큐레이터로 일하면서 목록을 주제로 한 전시회, 음악회, 컨퍼런스, 낭독회 등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감독하며 <욕망의 편린>을 수집했고 이 책 안에 그것들을 목록화했다. 195장의 삽화와 호메로스, 단테, 괴테, 조이스, 프루스트 등 대가들의 작품 80여 종 속에서 펼쳐지는 각종 목록의 대항연!

@openbooks.co.kr

2010년 11월 12일, 지금은 편집 중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 이소영 editorial@

오스카 와일드가 남긴 유일한 장편소설이라니. 또 새롭게 알게 된 건 오스카 와일드는 수다쟁이라는 거. 헨리 워튼, 바질 홀워드, 도리언 그레이. 지적이고, 예술적이고, 나르키소스적인 세 남자의 캐릭터를 대사만으로 완벽하게 완성해 냈으니 정말 대단하다. 입 밖으로 소리 내 보며 대사를 만지고 있다. 그래야 한다. 수다쟁이 와일드 때문에.

「임금 인상을 요청하기 위해 과장에게 다가가는 기술과 방법」★ 양혜진 yhj@

<임금 인상을 요청하기 위해 과장에게 다가가는 기술과 방법>. 제목만 이렇게 길다. 본문은 딱 한 문장. 마지막 온점이 나올 때까지 줄줄 줄 이어진다. 이런 책은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강의 왕」★ 이해정 coldperson@

<해골을 발견한 소년 이야기>. 이 만화는 뚜렷한 즐거리도 없다. <소년의 시선>을 따라가는 방식으로 진행될 뿐. 그래서일까. 이 만화를 보다 보면,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어린 시절이 어렴풋이 떠오른다. 맞아, 어렸을 땐 이런 엉뚱한(이것도 <어른>의 관점이지만) 공상을 하곤 했었지. 그림은 또 어찌나 환상적인지!

「햄릿」★ 홍상희 hong@

행이나韻이나, 그것이 문제로구나!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아마도) 가장 유명한 작품 <햄릿> 편집 중. 셰익스피어의 의도를 살려서 운율을 맞추자니 비문투성이에 행수마저 어그러지고, 간신히 행수를 지키자니 운문회곡의 느낌은 온데간데없다. 아아, 방황하는 이어, 그대의 이름은 편집자이구나!

「미셸 푸코의 휴머니즘」과 「스피노자의 동물 우화」★ 진봉철 jin@

지난번에 소개한 두 권의 아름다운 철학 책, 여전히 편집 중이다. 11월 중으로는 독자들에게 선보일 수 있으리라! 연봉 협상이 임박했다!

「갈레 씨, 홀로 죽다」★ 김뉘언 nuit@

<겨울에는 코냑 한 통, 그리고 심농 전집과 지내는 게 최고다>. 을 겨울은 (위의 세폴베다 말대로) 조르주 심농의 추리소설과 함께 나게 됐다. <매그레 반장 시리즈> 중 두 번째 책 편집 중. 12월까지 4권의 매그레 시리즈를 편집하는 것이 목표다. 그나저나 코냑 한 통은 어디서 구한다…….

「아들과 연인」★ 강희진 coco@

두 권짜리다. 두께도 만만치 않다. 진도가 안 나가나 그랬다. 그런데 어떤 대목은 빨리 들어간다. 이런 것이 고전 문학의 매력인가. 감성적이고 섬세한 대목들이 산재하여 다행히도 자주 이끌려 들어간다. 로런스의 작품이니까. 그의 글에 흡수되고 있을 때 그 맥을 놓치지 않고 성큼성큼 교정을 진행하기 위해 긴장하고 있는 단계.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김다미 bookpang@

전후 독일의 정신적 지주, 하인리히 뵐. 그가 세상을 떠난 지 25년째 되는 2010년의 고틀머리에 <누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인지, 진지하게 탐구 중이다. 그 답을 알게 될 때쯤엔 그의 다른 작품을 읽지 않고는 못 배길 것만 같다.



# Open-the-Book

www.openbooks.co.kr

20101112: no.3



노랑공룡의

책

영리책들 · 이메시스 · 별칭지

커버 스토리  
『도롱뇽과의 전쟁』

# 도롱뇽과의 전쟁!

## 표지가 백지여도 좋으니 빨리 출간해 달라! @jamja

체코 최고의 작가 카렐 차페크의 코믹 버전 인류 멸망 보고서 『도롱뇽과의 전쟁』! 독자들의 압박을 꺾듯이 이겨 내고 쏟아지는 리뷰의 주인공 <롱뇽>이 되기까지

자료 협조: 열린책들 네이버 카페(cafe.naver.com/openbooks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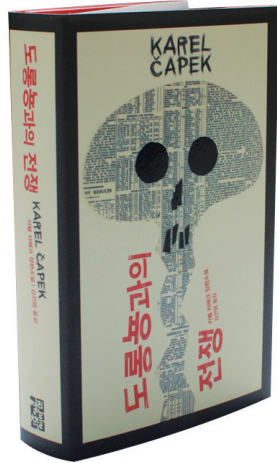
★ 『도롱뇽과의 전쟁』이 출간될 것이라는 소식이 열린책들 카페에 처음 전해진 것은 2010년 7월 말. 그러나 어언간 한 달이 지났고, 열린책들 카페에는 출간 소식을 묻는 쪽지와 글이 (슬금슬금 해변으로 다가오는 도롱뇽들처럼) 올라 판 삽화의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어 표지와 본문 디자인에 큰 변화가 생길 것. 한국어판에 맞는 새로운 삽화를 모색하느라 몇 주를 흘려보내고 있을 때 급기야 열린책들 트위터의 타임라인에는 (우두머리 도롱뇽의 경고보다 무서운) 경고문 하나가 떠오른다. <도롱뇽과의 전쟁! 표지가 백지여도 좋으니 빨리 출간해 달라!>

우리는 의미 있는 결정을 했다! 차페크와 그의 오랜 팬들을 위해……

@도롱뇽 편집자(?)

★ 한국어판만의 개성 있는 삽화를 탄생시키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던 중, 저작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체코판 삽화를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936년 체코에서 출간된 이후 전 세계에서 번역, 출간되었지만 정작 우리나라에는 정식 완역본이 없던 <도롱뇽>. 밀란 쿤데라, 프란츠 카프카보다 더 존경받지는 체코의 국민 작가이면서도 국내에서는 SF 작가로만 알려져 있던 <차페크>. 그리하여 열린책들의 선택은 <탄생>보다 <부활>, 새로움보다는 의미 있는 판본이었다. 열린책들 판본 디자인의 모태가 된 1965년판 『도롱뇽과의 전쟁』은 출간된 해 <가장 아름다운 체코슬로바키아 책>으로 선정되었고, 오늘날까지 체코어로 출간된 최고의 판본으로 꼽힌다. 따라서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 <우리는 의미 있는 결정을 했다>고……

★ <롱뇽>이라는 애칭을 얻으며 한국 사회에서 점차 서식지를 넓혀가게 된 차페크의 도롱뇽. 1930년대 독자들 사이에서 즉각적인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만큼 2010년 한국 사회에 어떤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을까? 아주 작은 시작이지만, 열린책들 카페에는 만화가 두루 님의 만화 서평을 시작으로 매주 반가운 리뷰가 올라오고 있다. 모든 현상에 대해 즉각적으로 판단하는 타고난 저널리스트, 그 날 카로움의 이면에 내포된, 인간에 대한 고지식한 믿음. <롱뇽>을 읽은 독자들은 아마도 매일 아침, <차페크>를 읽을 것이다. 믿음이 현실이 될 그날까지.



재미있고 강렬하며 충격을 마구 던지는 작품이지만 동시에 너무나 쓰디쓴 여운을 남기는 엄청난 작품 (……) 차페크의 다른 작품들이 무척 기대되고, 이 작품은 꼭 재독을 하고 싶다. — yes24 독자 guittagi님의 서평

이 세계에는 진정한 약함보다 무지함이 더 많다. 그러나 그보다 더 많은 것은 공감과 진실, 친절과 선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릇된 일로 인간 세계를 포기할 수 없다. (……) 나약한 박애주의라고 해도 좋다. 나는 그들이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사랑한다. — 카렐 차페크

“Good evening, you people.”

국가도 정부도 없는 도롱뇽들의 선전 포고 인간 세계의 모든 경우의 수가 이 안에 있다! SF의 수법으로 그려 낸 독특한 정치 우화 『도롱뇽과의 전쟁』

인간처럼 언어와 도구를 사용하지만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는 순박한 도롱뇽들과 그들의 노동력과 기술력을 착취하는 탐욕스러운 인간 사이에서 벌어지는 갖가지 에피소드를 그려 낸 작품. 언뜻 보면 진짜 같은 연구 보고서, 여행기, 취재기, 각국의 신문 기사와 영화 시나리오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자료를 절묘하게 이어 붙여 20세기 인류의 상흔을 실감나게 묘사해 낸다.

B6 | 444면 | 11,800원 | 열린책들 발행

## About us

체스터턴보다 자유롭고, 조지 오웰보다 낙천적인 체코의 몽테뉴, 카렐 차페크

1890년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북동부 지역에서 태어남. 20대부터 희곡 작가, 소설가, 동화 작가, 전기 작가, 수필가, 번역가로 장르를 가리지 않고 뛰어난 작품들을 발표함. 체코 유력 일간지의 기자로 특유의 기민함과 신속성을 발휘, 20세기 초만 횡행했던 다수의 이즘(ism)들을 둘러싼 국제 사회의 어리석은 행태를 생생하게 고발함. 대표작 『도롱뇽과의 전쟁』에서는 과학, 자본주의, 파시즘, 저널리즘, 군국주의, 심지어 할리우드에까지 그 날카로운 칼날을 들이밀었음. 인간 세계를 날카롭게 풍자하면서도 인간을 바라보는 시선만은 끝까지 따뜻한, 영원한 휴머니스트. 그로 인해 나치스 공공의 적 No.3로 지목됨, 시대의 쓴소리꾼.

제4회 유명번역상 수상에 빛나는 김선형의 번역

밀란 쿤데라, 토마스 만이 허를 내두른 최고의 이야기꾼 카렐 차페크. 그의 입담이 총동원된 『도롱뇽과의 전쟁』.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라틴어부터 방정맞은 도롱뇽 영어까지 <산 넘어 산>이었으나 모두 유쾌하게 각개 격파! <차페크를 모르는 독자들을 위한 안내서>라고 할 수 있는 역사 해설. 참으로 인간적인 반 토호 선장의 말투는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명번역! 이제는 차페크의 열혈팬이 되어 비밀리에 다음 작품 번역을 준비 중.

차페크 마니아, 야로슬라프 울샤 Jr. 주한 체코 대사

차페크의 노벨상 수상 심사에 얽힌 비화, 차페크의 작품에 관한 당대 체코 독자들의 평, 체코 판 삽화에 대한 유익한 정보로 가득한 스페셜한 작품 해설. SF 잡지의 편집장이자, 출판사 대표라는 독특한 이력을 지닌 울샤 대사의 솜씨임. 각국의 『도롱뇽과의 전쟁』 판본을 보여 주시고, 이번 한국어판에 사용된 삽화까지 소개해 주셨으니, 그야말로 각별한 인연! 출간된 책을 만나는 날, 대사관 밖으로 5초만에 뛰어나온 어쩔 수 없는 차페크 마니아.

출판 편집 들여다보기③  
책의 첫인상, 책의 형태와 판형

- 지자	카렐 차페크(Karel Čapek)
- 옮긴이	김선형
- 출판사	열린책들
- 발행일	2010년 10월 10일
- 페이지	B6 견장정 / 444면
- ISBN	978-89-329-1061-1 03890
- 분야	소설/체코 문학
- 수상내역	
- 정가	11,800원

열린책들 홈페이지(www.openbooks.co.kr)에서 『도롱뇽과의 전쟁』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페이지 항목 중 B6 견장정 / 444면이라는 서지 정보가 보입니다. 444면은 페이지인 걸 알겠는데, B6 견장정은 무슨 뜻일까요? 책의 얼굴 크기와 두께를 결정하는 책의 형태와 판형에 대해 알아볼까요?

### 책의 형태

책의 형태는 <책매기 방식>에 따라 크게 견장정(하드커버)과 연장정(소프트커버=페이퍼백)으로 나뉩니다. 견장정은 접지된 내지를 철사나 실로 꿰맨 후 두꺼운 종이 따위로 표지를 만들고 이를 천이나 가죽 등으로 감싼 책매기 형태를 말합니다. 이에 비해 연장정은 일반적으로 내지를 접착제로 붙인 후 종이 한 장으로 표지를 만든 형태를 말하죠. 견장정은 내구성이 좋아 오래 보관해도 손상이 적다는 장점이 있으나 연장정에 비해 제작비가 많이 들고, 제작 기간이 오래 걸리며, 무겁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연장정은 가볍고 탄력이 있어 휴대하기가 편하고 가격이 저렴하지만, 표지와 책매기가 견고하지 못해 손상될 가능성이 있고요. 독자마다 취향이 달라 편집자와 디자이너가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 책의 판형

모든 종이는 크게 나누어 A계열의 종이와 B계열의 종이 있습니다. 흔히 A계열은 <국전지>, B계열은 <4X6전지>라 부르지요. 판형은 A계열의 종이를 쓸 때는 A4판, A5판, A6판 등으로, B계열 종이를 쓸 때는 B4판, B5판, B6판 등으로 불립니다. A계열(국전지)을 16절한 것을 <A5판>, <국판(菊版)>이라 부르며, B계열(4X6전지)을 32절한 것을 <B6판>, <4X6판>이라고 합니다. <국판>과 <4X6판> 두 판형 모두 일본식 용어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쓰이게 된 것이므로(자세한 내용은 『열린책들 편집 매뉴얼』 297~298면을 참고하세요) 국제 표준 용어인 A계열, B계열 종이 등으로 바꿔 부르는 것이 좋겠지요?

온라인 서점에서 책을 사는 일이 점점 많아지는 요즘, 서가에서 책의 첫인상에 반하는 경험이 점점 특별한 경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서지 사항에 쓰인 정보 정도는 읽을 수 있어야겠죠? 『도롱뇽과의 전쟁』, 견장정 B6군! 이렇게!